

# 발달장애인 고령화...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시급하다

###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 수립 정책 토론회 장애·노인 특성 동시 고려 자립생활 대책마련 필요

광주 지역 발달장애인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홀로 남아 자립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지역 등록 장애인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발달 장애인 등록은 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연령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에 서다.

13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시 발달 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종선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

구'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박 연구원이 광주복지플랫폼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 지역 등록 장애인 수는 2019년 7만177명, 2020년 7만61명, 2021년 6만9819명, 2022년 6만9454명, 2023년 6만9314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 등록 수는 2019년 7747명, 2020년 7996명, 2021년 8282명, 2022년 8531명, 2023년 883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발달장애인들의 연령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50대 발달장애인은 2021년 1380명

2022년 1458명, 2023년 147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 발달장애인의 증가세는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발달장애인 부모들도 "부모들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질 발달장애인 자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보호자 역시 고령화가 진행돼 돌봄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와 노인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날 토론회자로 나선 임은주 서구청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대부분 고령 발달장애인들이 현재 지

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고 있다"며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돌봄 및 낮 활동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경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역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와 욕구를 파악하고, 건강검진,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고령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향후 3년간 광주시 장애인 복지 재정이 2024년 예산 기준 30억여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장애인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 사업마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 복지 담당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기존 사업들을 내실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6곳으로 입소 가능한 정원은 524명이지만 현재 입소자는 428명이다. 96명 추가 입소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더해 기본계획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등 정부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진영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 장애인이 부모를 떠나서 자립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광주시의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일회용품 없는 북구 정책토론회** 광주시 북구의회가 최근 '광주 북구 일회용품 없는 마을 축제 및 행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광주북구의회 제공>



호반새



팔색조

## “무등산 찾은 여름 철새 SNS서 만나보세요”

**붉은배새매·소쩍새·팔색조 등**

무등산국립공원을 찾은 다채로운 여름 철새들의 모습을 SNS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이달부터 무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활영한 여름 철새 화상자료를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 SNS에서 볼 수 있는 여름

철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붉은배새매, 천연기념물 팔색조와 소쩍새, 대표적 여름철새인 호반새, 꼬리리, 파랑새, 물총새, 노랑할미새로 총 8종이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붉은배새매는 개구리 등 먹이원의 감소로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팔색조는 기후변화로 인해 분포지가 점차 북쪽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남구, 청년 월세 2년간 12억여원 지원 ‘호응’

광주시 남구가 2년 동안 지역 무주택 청년들에게 총 12억원 상당의 월세를 지원했다.

남구는 올해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남구에 거주하는 청년 334명에게 월세 4억4000여만원을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청년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주거 불안정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특별 지원 사업이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소득과 재산 규모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한 청년에게 1년간 매월 20만원 이내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1차 지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진행했으며 지원 대상은 남구거주 청년 427명으로, 총 7억 9300여만원을 지원했다.

남구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은 이유는 한달 지출 내역에서 고정 비용인 월세의 비중이 상당한데, 매월 20만원 가량씩 받는 월세가 주거 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자료를 근거로 이와 같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며 이중 월세 등 주거비는 22만원으로, 식료품비 48만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 학생 처지에서는 월세 고정 지출은 큰 목돈이 드는 것처럼 부담되고, 청년 직장인들도 고물가 시대에 고인이 를 수밖에 없다"면서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메마른 삶에 활력을 넣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존재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광주전남녹색연합, 20일부터 강의**

기후(氣候)를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됐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녹색강사 양성교육을 20일부터 진행한다.

광주전남녹색연합과 광주환경교육센터,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주화·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환경교육 강사 또는 환경에 관심있는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부터 9월 13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강사로는 김연경 코리아생태연구소 연구원(강의 장소 평두메습지), 박경희 전남대 동물행동생태연구실 연구원(장목습지), 김일권 광주연구원 연구위원(광주기후에너지 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신청은 이달 14일까지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북구·국립생태원 ‘생태보전 가치 확산’ 맞손

**생태정보·교육서비스 활성화 협약**

광주시 북구와 국립생태원이 생태 보전 가치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북구는 최근 북구 중흥도서관과 국립생태원은 '생태 정보·교육 서비스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생태원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환경생태 보전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원 상호 지원 및 공유, 평생 교육과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

영, 양 기관 발전과 활성화 등에 공동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북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립생태원이 보유하고 있는 생태 도서 등을 지원받아 환경생태 주제의 다양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중흥도서관에서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생태 친화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구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로 뜻을 모아주시 국립생태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과 함께 유익한 생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